

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시	2021. 1. 13.(수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기업성장 지원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팀장 오공명, 사무관 박지은, 주무관 양두석</li> <li>• ☎ (044) 201-3264, 3257</li> </ul>	
	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	사업화지원 Hub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실장 이해령, 수석연구원 백승렬 선임연구원 심형욱</li> <li>• ☎ (031) 389-6343, 6419</li> </ul>	
보 도 일 시		2021년 1월 1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3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‘21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10대 유망기술 지원 대폭 확대

- 중소기업 유망기술 사업화지원 265억 신규투자(작년대비 4.6배)
- 초기창업부터 성장·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

□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유망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·검증, 시험시공 등을 지원하는 ‘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(이하 ‘기술사업화지원사업’)의 ‘21년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26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(R&D)예산을 확보,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\*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
\* 스마트시티, 녹색건축, 자율주행차(미래차), 드론, 자동차 애프터마켓, 스마트건설, 스마트물류, 프롭테크, 공간정보, 철도부품 + α

○ ‘기술사업화지원사업’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, 실험실 성능검증까지 완료한 수준(기술성숙도 6 이상)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

-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매출액 증대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국토부는 코로나-19 상황 등으로 중소·벤처기업의 연구역량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, 기술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소·벤처기업 연구개발(R&D)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약 4.6배 증액\*했으며,

\*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규예산 : '20년 57억(18개 과제)→'21년 265억(84개 과제)

- ①스타트업, ②혁신중소기업, ③민간투자 연계, ④수요기관 연계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사업지원을 체계화했다.

①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억 원(연구기간 3년 이내)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(초기창업) 지원의 경우, 창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등록 특허가 아닌 출원특허 보유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,

②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나,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기술의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·검증 등을 위해 최대 13억 원(연구기간 3년 이내)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③ 또한, 사업화 역량이 검증되어 민간투자(최근 3년간 3억 이상)를 받은 중소기업인 경우, 추가 기술개발, 인·검증, 현장적용 등 사업화 전과정 통합지원을 위해 최대 20억 원(연구기간 3년 이내) 규모의 자금도 지원하며,

④ 중소기업이 연구기간 내 사업화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, 공공기관이 수요처로 연구실증장소를 제공하는 수요기관 연계형 과제도 최대 13억 원(연구기간 3년 이내)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,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(www.kaia.re.kr/알림/사업공고/국토교통R&D)을 통해 공고 중(1.8~2.9)이며, 제안서 접수와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부터 연구비 지원이 시작된다.

\*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규과제 문의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ne-call 상담센터  
(☎1599-8686 내선 4번, honeycut@kaia.re.kr, shw85@kaia.re.kr, )

□ 국토교통부 오공명 기업성장지원팀장은 “국토교통 분야 중소·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기술의 개발을 위한 인력과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

○ “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,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로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지은 사무관 (044-201-3264), 양두석 주무관(044-201-3257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